

# 익산시, 예산활동 강행군

### 정현을 시장, 매주 중앙부처 방문 인적네트워크 활용 실무자 접촉, 대규모 SOC사업 등 예산 반영 적극 요청

익산시가 매주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14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도로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일일이 실무부서를 방문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직접 발품행정을 펼쳤다. 우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담수호 수질향상을 위한 △익산시 관수도 유희수 처리사업과 미륵사지 관광지 하수인프라 확충을 위한 △익산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요청했

다. 이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도로국장을 차례로 방문해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통물류를 위한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정) 개설사업, △익산 오산~영남(국도대체우회도로) 4차로 개설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인 정 시장은 중앙부처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무부서를 방문해 담당자를 직접 만나며 익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실무진에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8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한 바 있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로 5년째 중앙부처와 국회에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끈기있고 지속적인 발품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무담당자와 사전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대면접촉이 힘들었으나 이제부터는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발품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는 14일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체, 전문가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주민공청회

### 익산시, 지역주민 참여 강조

익산시는 14일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체, 전문가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남중동 신청사지역과 금마면 금마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윤중열교수,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 LH도시재생지원기구 전우선박사, 전북연구원 오병복박사 등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어 각각의 연계 사업들과 도시재생의 시너지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남중동 신청사 지역은 생활·문화·복지 거점화로 공공 기능 확충, 신청사 주변 상권회복, 주거지 정주환경 마련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마 고도 지역은 장소와 가로의 역사성 회복을 통한 재생, 역사·관광 지역특화를 통한 중심상권 회복, 노후 공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지역 재생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와 함께 6월 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다.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참여 주민은 "우리 동네가 낡고 살기 불편해 떠나들씩 떠나고 있었으나 도시재생사업이 꼭 선정돼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인화동과 송학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9억원을 확보해 올해 본격 착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사랑상품권 완판

특별할인(10%) 군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이 지난 13일 완판됐다. 특별할인 상품권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정부로부터 8% 국비 지원을 받아 총액 800억원, 모바일상품권 200억원 규모로 지난 4월 6일부터 발행됐다.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판매가 완료됐으며 지역상품권의 특성상 판매금액이 전액 골목상권에 유통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 특별한 효과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특별할인 상품권 완판과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국비 정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1일부터 기존대로 8% 할인율을 적용해 개인별 70만원의 구매한도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시 농업 관련 단체 인재양성 성금 기탁 등

익산시는 희망농정위원회 등 농정거버넌스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하여 14일에 탑전에서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및 하천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농정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농민연대,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 농협 중앙회 익산시 지부, 산림조합,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마스크를 쓰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실시했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농민연대,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실시할만 모든 코로나19 성금 534만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익산시립정화재단 및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팬데믹 위기 ‘정신의 개벽’으로 넘어서자”

### 원광대 개교 74주년 기념식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개교 74주년 기념식을 14일 오후 2시 교내 송산기념관 3층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15일 개교기념일에 하루 앞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대표 수상자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교내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40년·30년·20년 연공상 및 학술상, 교육 업적상을 비롯해 강의우수상, 공로상 시상에서 이어 학생 표창과 재경동문회, 이디야 학생회관점 이성자 대표, 전주중앙여고 정인민 교사 등 외부인사 10명에게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각각 공로패가 전달됐다.

박맹수 총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이 그러했듯이 원광의 모든 구성원도 지난 75년 동안 여러 차례의 위기 상황을 집단지성과 일심협력, 공동정신 실천을 통해 창조적으로 극복해 오려 이르렀다”며, “우리 민족과 우리 원광대학교가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해 낸 바탕에는 ‘개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광대학교는 이러한 ‘개벽’의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이라며, “팬데믹 위기상황을 ‘정신의 개벽’으로 넘어서자는 것이 원광대 개교 정신이자, 원광대학교 건학이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광대학교는 건학이념을 마음공부와 학문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로 구현하고, 이것이 바로 송산 박길

진 초대 총장께서 평생토록 구현하고자 했던 교육철학이었다”며, “지구화 시대에 요청되는 개벽학과 지구학을 모색해 K-방역과 같은 K-Studies를 창조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개벽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중규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대학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기회를 삼아 일심협력하여 난제를 극복하는 모든 구성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원불교 대중사민의 가르침이신 정신개벽을 통해 건학이념에 충실한 원광대학교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착한 소비로 골목상권 살리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침체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14일 공무원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익산시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내 이웃 가게와 골목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동네가게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고!’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 이웃 동네 점포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동네 점포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날 말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전통시장 장바구니를 실시한다. 국·소·단별 직원 자매결연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재난기본



익산시가 ‘착한 소비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소득 기프트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집계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코로나 초기 극복 추경 긴급 편성

### 긴급지원 등 1220억원 편성

군산시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220억원 규모의 제8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했다. 이중 코로나19 대응 주요사업에 1,097억원이 편성돼 90%를 차지하고 있다.

추경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수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행사성경비 및 국내·외여비, 경상적경비의 삭감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없이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자리 사

업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44억원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6억원 △이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 56억원 △택시·화물업계 종사자 지원 28억원 △지역고용노동 및 일자리사업 49억원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래없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즉시 행정력을 총동원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